



EARTH  
2023  
ESG  
(ENVIRONMENT)  
LIFE

일상생활에서 우리 지구를 지키는  
간편한 방법들

DESIGN PUBLISHING

X

Dongmyeong University students

## CONTANTS

1. 현재 지구는 아픈 하루를 보내고 있다.

송채영 기자

2. 일상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 3가지

이효정 기자

3. K-POP의 과소비 문화와 환경오염

조예진 기자

4.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박보은 기자

## CONTANTS

5. 비건라이프 일상 적용하기 쉬운방법

김수현 기자

6. 하루에 버려지는 370마리 유기 동물

허서연 기자

7. 코로나 트레이시, 넘쳐나는 쓰레기

오소연 기자

8. 마무리

기자들 소감





# 현재 지구는 아픈 하루를 보내고 있다

송채영 기자

안녕하세요. 지구 지킴이들.  
여러분들은 지구 온난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구 온난화란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왜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걸까요?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오랫동안 약 14도 정도를 유지했던  
지구 온도는 100년 만에 1도가 올랐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지구는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의 17도로 돌아갑니다.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은 기나긴 빙하기를 견  
디며 추위에 적응해 온 생명체입니다. 지난 500만년 동  
안 지구 온도가 16도를 넘어선 적이 없었기에 17도 이  
상의 더운 지구를 견딜 수 있는 동식물은 현재 존재하  
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고려하여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는 목표치를 1.5도로 낮췄습니다. 500만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2도 이  
상의 온도 상승이 나타날 때 지구 생태계가 맞을 가능  
성을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는 탄  
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탄력성은 지구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데요.지구 온도가 1도 상승시 작은 빙하가 녹아 약  
5000만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매년 30만  
명이 더위 문제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온도  
가 높아질수록 빙하가 녹는 시간이 더 빠르게 가속화  
되면서 해안지역과 저지대 지역의 피해가 심해질 것  
4\_디자인퍼블리싱



입니다.

또한 섬세한 생태계를 파괴되고 생존을 위  
해 이러한 서식지에 사는 야생동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2도 상승시  
열대지역의 농작물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약 5억명의 식난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3도, 4도 상승시 지구온난화 문  
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넘어가서 매  
년 10억~ 40억명 이상이 물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될 수 있고, 유럽의 여름 온도는 약 50도까지 오르게 되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가 사막으로 변하게되며 북극의 얼음이 사라져 추운 지방에 있는 생물들이 멸  
종하게 됩니다.

1.5도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기온의 수치로는 0.5도의 차이지만, 0.5도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과 받게되는 영향  
들을 크게 나타냅니다. 지구의 가열에 대한  
부분에서도 적게는 2배에서부터 많게는 10  
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  
만 1.5도의 제한이 잘 지켜진다면 극한기상  
현상이 감소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약 15  
도입니다. 1.5도라는 수치는 우리에게 중요  
한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경고가 필요하겠죠?

지구온난화 현상을 정부가 모른척한다면 그대로 무너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는 꼭 필  
요합니다. 또한 교육기간을 통한 지구온난화 현상과 자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히 우리가 집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백열등 대신 형광등을 사용하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헌 책과 헌 옷 기부 등 다양한 해  
결방안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손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지구를 지키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행복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3가지 방법

이효정 기자



## 제로웨이스트란?

여러분은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로 웨이스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1988년부터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기업 및 정부에서 제로 웨이스트 목표를 설정하거나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국내에서는 환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제로 웨이스트 관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적인 매장이 증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공식적으로 함께 실천해 아이들부터 환경 보호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간단한 3가지 방법

일상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일회용품 거절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배달 앱의 사용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앱 사용 시 일회용 수저나 빨대를 거절하는 것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종이 영수증이 아닌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것도 실천 방법의 하나입니다. 필요 없는 일회용품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사용하기’입니다. 외출 시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지참하면 별도의 비닐봉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점 이용 시 다회용기를 지참하거나 카페 이용 시 텀블러를 지참할 경우, 환경 보호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분해되는 물건 사용하기’입니다. 국내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제로웨이스트 매장에 방문하면 옥수수 껍질로 만든 비닐, 종이로 만든 빨대, 고체 샴푸, 대나무 칫솔, 재생지 노트, 친환경 수세미 등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수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 친환경 수세미를 사용하면 기존 수세미에 비해 건조가 빠르고 물에 적시면 부드러워 그릇에 흠집이 발생하지 않고, 다 사용한 후에는 자연 분해가 가능하기에 환경보호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폐플라스틱의 60%는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데,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썩는 시간이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 미래의 나를 위해 함께 실천하여 우리 함께 일상 속에서 작은 노력으로 지구를 지켜보아요.

지금 당장 버리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로가 어렵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레스(Less)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K-POP의 과대소비문화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  
조예진 기자

여러분은 K-POP 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대단한 K-POP 가수들이 많은데  
요 그 뒤에는 그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있습니다. 이 팬덤들이 열심히 하는 K-POP 가수들을  
서포트 하죠. 이런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도대체  
무엇 때문에 K-POP이 우리 지구를 망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POP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물 앨범의 무자비한 소비 문제입니다.

## 왜 실물 앨범의 소비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나요?

앨범에는 '가장 나쁜 플라스틱'으로 꼽히는 폴리염화비닐(PVC)로 포장되어 있고, 플라스  
틱과 코팅 종이, 특수 화학 처리를 하는 혼합 플라스틱인 CD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  
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물앨범에 들어 있는 구성입니다.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플라스틱을 양산하는 실물 앨범 소비  
이다.



8\_디자인퍼블리싱



2020년 기준 그 해 팔린 앨범은 4200  
만장, 21년은 9월까지 4300만장에 이  
른다. 같은 앨범이 여러버전으로 나오  
거나 앨범 안에 포토카드, 팬 사인회  
응모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팬들 1명  
이 많게는 수백장씩 구매하기 때문이  
다.

앨범 과소비 이유 중 하나인 팬 사인회의 경우에는 다른 앨범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실물 앨  
범이 아닌 디지털 앨범으로 대체하면 좋겠다는 등 앨범 과소비를 막을 여러가지 방법들을 팬  
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진행형으로 팬들이 진행하고 있는 선행들도 있다. 아이  
돌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나 특별한 날 팬들이 돈을 모아 그 아이돌 이  
름을 따 숲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숲은 향후 50년, 100년 동안 도심 속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과 맑은 공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성  
숙한 팬 문화가 발전되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집  
니다. 현재 서울에 27개, 해외 합산 34개, 현재도 스타숲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먼저 청하는 자신의 첫



정규앨범 '케렌시아'(Querencia)를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포장재부터  
화보, 가사집 등에 재생 종이를 사용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TPU(열가  
소성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든 소파 등 친환경 소재를 활  
용한 블랙핑크 굿즈(기획 상품)를 내놓았고 송민호의 정  
규 3집 '투 인피니티'(TO INFINITY) 제작 과정에서 적  
극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또한 세븐틴은 '2022  
SVT PHOTOBOOK THE NAME;17'에 자연 분해 가능  
한 지류와 콩기름 잉크로 제작했고 생분해 가능한 옥수  
수 전분(PLA)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보다 많은 노력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작사에서 더 많은 관심으로 앨범 과소비 문  
화를 멈추고 앨범을 통한 환경 오염을 줄여 나가 K-POP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모두가  
즐기는 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박보은 기자



##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하게 재활용하는 것 말고 디자인을 넣거나 가치를 더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업사이클링의 우리말 표현은 새활용입니다. 재활용 의류,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물건을 만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비료 만드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 대표적인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4가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 말고도 필요한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누각입니다. 누각은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현수막, 타이어 튜브, 카이트 서핑 돛을 재료로 하는 유니크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재료 별로 제품이 구별되어 있어 원하는 재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상 속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매년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라는 슬로건이 함께 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 밀키 프로젝트입니다. 밀키 프로젝트는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에코 활동을 통해서 모여진 우유팩 등을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붙여 넣어 일상용품 및 패션 아이템 등으로 재탄생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밀키 프로젝트의 제품은 깨끗하고 공정한 제조과정을 거쳐서 지구와 사회에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 RE;CODE(레코드)입니다. 레코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에서 전개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새로움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들고 중고 아이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코드는 오래되거나 싫증난 옷을 새롭게 탄생시켜주는 고객 맞춤형 업사이클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CODE의 RE는 생각의 전환을 기반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을 뜻하고 CODE는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패션을 넘어선 문화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브랜드, 119 REO입니다. 119 REO는 폐방화복을 소재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파우치나 키링, 지갑, 가방 등 폐방화복을 소재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많은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119 REO는 제품 판매도 하고 전시와 토크쇼 등을 통해 소방 현실을 알리는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금액의 50%는 소방단체나 공상 불승인 암 환자 소방관 등 각지에 기부합니다.



## 사용이 계속 가능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매도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무조건 업사이클링이라 멋이 없고 성능이 안좋은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다함께 이 브랜드들을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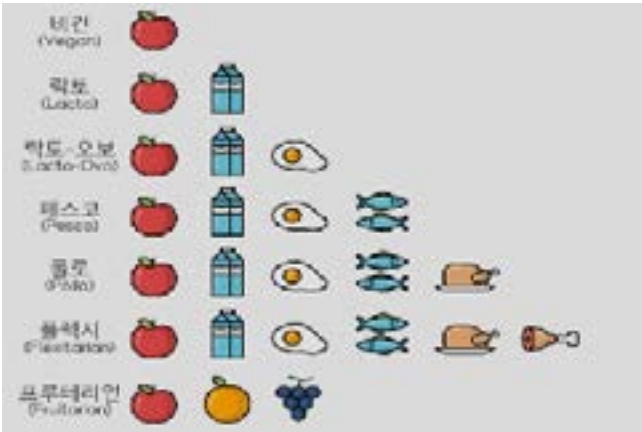


김수현 기자

최근 비건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소비 생활을 통해 자신의 취향, 가치관, 신념을 표출하는 MZ세대들에게 비건은 아주 익숙한 용어로 정착되었다. 비건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동물 착취 중단을 통한 동물 해방이다. 공장식 축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심각성.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발생 등의 문제를 접하기 쉬운 요즘의 상황에 따라 환경과 건강을 이유로 식생활에서 비건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비건은 단순한 철학 개념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바로 도전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비건. 완전히 동물성식품을 먹지 않는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건을 접하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자. 페스코테리언과 락토테리언 등의 비건스타일 중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다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비건을 부담없이 시작해 볼 수 있다. 포기하기 힘든 음식을 체크하여 실천할수 있는 비건을 찾아보면 어떨까

12\_디자인퍼블리싱



식습관을 비건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에게는 생활 속 작은 요소부터 바꿔 볼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옆의 사진은 Samsonite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된 Vegea가방이다. 언뜻보기엔 가죽가방같아보이지만 이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 식물성 기름 그리고 자연의 섬유질을 재활용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환경 친화적이고 석유화학소재와 동물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패션아이템이 많이 출시되는 추세이니 취향에 맞게 비건패션을 추구해 보는것은 어떨까



비건버터 만들기

- 재료
- 캐슈넛
- 물
- 뉴트리셔널 이스트
- 소금
- 아가베 시럽
- 애플 사이다 비네거
- 정제 코코넛 오일
- 포도씨오일

이 음식이다. 무작정 안먹거나 피하는것 보다 대체할 수 있는 레시피를 찾아보면어떨까? 이번에는 여러 레시피에 활용하기 좋은 비건버터 레시피를 소개해 보겠다. 만드는방법은간단하다. 오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믹서기로 갈고 그 후 오일을조금씩 넣어가며 갈아준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굳혀주면 완성이다.

이 비건버터는 일반 버터처럼 빵에 발라먹거나 요리할때에도 사용하기 좋다. 생소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인비건을 생각하는 분들은 구매하여 여러 요리에 활용해보면 좋을 것이다.



# 하루에 370마리 버려지는 유기 동물

허서연 기자

## 유기 동물이란?

유기 동물이란 반려인 등 소유자로부터 버림받은 동물을 말합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제4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시 동법 제46조 <벌칙>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1년간 전국에서 구조 및 보호 조치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수치로 매년 1~2만 마리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허술한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 동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유기 동물 숫자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동물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2개월 이상 된 동물의 몸 안에 칩을 삽입하거나 목걸이를 걸어 주는 방식입니다. 동물의 이름, 주소 등을 알 수 있어 일종의 주민등록증인 셈입니다. 그런데 동물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 된 반려 목적의 동물이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이 기준 대로라면 펫 샵에 있는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펫샵의 동물들은 새 주인을 만나야 제대로 된 소속이 됩니다. 만약 입양, 분양 직후에 버려지면 주인 없는 동물 한 마리가 또 늘어나는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반려동물 등록 예외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물 등록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 않은 동물보호법 조항 탓에 유기 동물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해결 방안

기존에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유기 동물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반려동물의 이름, 나이, 품종, 성별을 등록 후에 입양,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등록제는 '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적은 비율이더라도 다른 종의 반려동물 또한 고려하여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등 다른 동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인형' 처럼 사고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은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더 필요합니다. 말 못 하는 동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소연 기자

**‘코로나 트레이시’ 라는 말을 아시나요?**

코로나 트레이시는 코로나 19 로 인해 증가한 쓰레기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트레이시라고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일회용품, 일회용 배달 용기 등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지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쓰레기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19 필수템, 마스크**



코로나 19 가 장기화 되면서 ‘일회용 마스크’ 는 우리 일상 속에서 뗄 수 없는 물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 년 한국의 마스크 생산량은 16 억 7463 만장으로 성인 마스크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의도의 17 배 면적에 달하는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양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국내 온실가스는 1000t 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에 따르면 국민들은 2~3 일마다 1 개의 마스크를 쓰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한 마스크는 소각, 매립 되거나 생활 및 여행지 주변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소각할 경우에는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 이 발생해 생태계와 인체에 해롭고 매립할 경우에는 썩는데 약 450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트레이시의 심각성을 살펴보니 정말 심각하고 어마무시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비대면 일상화로 늘어난 배달 쓰레기**

마스크 이외에도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코로나 트레이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 배달 용기’ 인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배달 어플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배달 용기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배달 음식 일회용품 사용이 78% 증가하였고, 2020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848t으로 2019년보다 15.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소각 또는 매립 되거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류들은 재활용 된다고 합니다. 매립할 경우에는 500년동안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배달 용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한번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모두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하더라도 선별 시설에서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에틸렌 (PE) 등의 재질은 용기들의 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반찬이나 소스 용기처럼 크기가 작으면 재활용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배달 용기로 사용된 플라스틱 중량 기준으로 45.5%만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분석 했습니다. 일회용 배달 용기를 PP, PE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바꾸고 반찬이나 소스 용기는 일체형이나 크기가 큰 것으로 한다면 재활용률을 78.5%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트레이시, 함께 지구를 지켜요!**

코로나 트레이시는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코로나 트레이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절약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온다는 ‘인과응보’ 라는 속담이 있듯이 언젠간은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구와 환경, 생태계, 야생동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노력해봐요! 파이팅!



ESG

## 잡지를 마무리하며...

환경에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점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송채영기자-

환경 보호를 위해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잡지를 제작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효정기자-

K-POP 팬의 한 일원으로서 생각했던 주제로 자료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제작사들의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K-POP 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앨범 과소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앞으로 앨범을 구입할 때마다 이 기사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조예진기자-

ESG

## 잡지를 마무리하며...

자연환경을 지켜야한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옷이나 가방들을 업사이클링하는 제품들을 자주 알아보는데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제 잡지를 읽은 독자들이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박보은 기자-

평소 무관심하던 환경에 대해 찾아보며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되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기자-

동물보호에 평소 관심이 많았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허서연기자-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알게되고 나니 정말 지구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고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보호하고 절약하고 싶습니다. -오소연기자-





ENVIRONMENT

## 지구를 지키는 방법

대중교통 사용

탄소포인트제

식기세척기

중고거래 생활화

리필 상품 구입

고체샴푸

LED 조명

전자영수증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으로 우리 지구를 지켜봐요

DESIGN  
PUBLISHING